

전세대 '탄소은행' 가입한 광산구 신창동 H아파트 주민들

“남편이 먼저 전기코드 뽑고 다녀요”

초고유가 속 전기·가스료 절감 노하우 공유... 에너지 절약 생활화

“쓰지 않는 콘센트 뽑고, 전기 압력밥솥에서 가스 압력밥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달 전기료를 1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니...



18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H아파트 부녀회원들이 아파트 안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보며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주민 200여명은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 실천결의 대회'까지 갖고 본격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에 들어갔다.

정오(여·35)씨는 “빨래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물론 전력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전기계량기를 체크하면서 조절하고 있다”며 “그 모습을 본 남편과 아이들이...

다. 김인자(51) 부녀회장은 “직접 전기요금 납부서와 에너지 절약 방법 지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달에 1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일일이...

김인자(51) 부녀회장은 “직접 전기요금 납부서와 에너지 절약 방법 지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달에 1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일일이...

휴가철 빈집털이 기승

아파트 단지 절도 잇따라... 단속·주의 요망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룻밤 사이 세 가구가 잇따라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휴가철을 맞아 절도범이 기승을 부려 철저한 단속과 주의가 요구된다.

뒤늦게 깊이 잠든 사이 발코니 창문을 통해 침입한 점으로 미뤄 전문 빈집털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동종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또 더운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고

한편, 고흥경찰은 지난 16일 출근 차량으로 전남 일대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서모(19)군 등 4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니원침 (7560) 김장두



'지렁이 단팔뻥' 공갈범에 집행유예

'지렁이 단팔뻥' 사건을 일으킨 공갈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18일 단팔뻥 속에서 지렁이가 발견됐으며 제조회사인 A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황에서 피고인은 장난삼아 금품을 요구했다고 항변하지만 다급한 A사 측에 거액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당시 상황에 비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를 변호한 서일석 변호사는 "A사 관계자가 김씨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먼저 제안했다. 또 문제의 뻥을 먹었던 인부 송모(38)씨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도 의심스럽다"며 "김씨와 상의한 황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KCC (주)금복시스템, featuring a phone number and address.

“돈 좀 아껴 써라” 질책에

아버지 때린 외아들 영장

아버지를 삼승폭행한 외아들이 반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18일 아버지를 삼승 폭행한 A(27)씨에 대해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광주서부구 임동 아버지(56)의 집에서 “돈 좀 아껴서 써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결혼 후 부모가 살고 있는 월세방의 옆 방에서 따로 셋방살이를 하면서 아버지를 폭행했으며, 2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지를 모아 파는 어머니는 그동안 아이들의 생활비를 보태왔지만 아이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블레이크를 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한 뒤 처가 등에 옮겨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95% “독도교육 충분치 않다”

교총 설문조사. 교총이 중등교원 212명을 합쳐 총 5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학기 독도 계기수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90.2%가 '그렇다'고 답했고 '동참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日 독도 도발 규탄 '붐물'

정치권·사회단체 비판 쏟아져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각계의 규탄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규모 규탄집회와 결의문 채택이 이어지고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독도 침탈 기도를 비판하는 구호가 등장했다. 광주·전남 재향군인회는 18일 오후 광주공원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독도 침탈 기도가 아닌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군국주의의 부활 시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광주·전남 재향군인회가 광주공원 광장에서 개최한 '일본 독도 침탈 기도 망동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침탈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태풍에 휩싸이다

Weather forecast for July 19th (Monday) showing temperatures and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ju.

엠네스티 “경찰 촛불집회 과도한 진압”

국제엠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18일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주 간에 걸친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시위는 대체로

평화로웠지만 진압경찰이 균형을 향해 진격하거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일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주 간에 걸친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시위는 대체로

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법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기소된 시위자들에게 적법한 사법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희생자들에게 대한 구제 ▲집중 진압의 시위 현장 배치 재검토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쇠파이프 촛불집회 시위자 1년 6월 중형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책임을 물어 법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기소된 시위자들에게 적법한 사법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희생자들에게 대한 구제 ▲집중 진압의 시위 현장 배치 재검토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대낮 금은방 탄 대담한 외국인 남녀를 병행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일본의 초등 학교와 교류를 해온 여주시 신기초등학교는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19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 침탈을 규탄하는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병행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일본의 초등 학교와 교류를 해온 여주시 신기초등학교는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19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 침탈을 규탄하는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병행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일본의 초등 학교와 교류를 해온 여주시 신기초등학교는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19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 침탈을 규탄하는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병행했다.